

장흥 청하영농법인, 장학금 2천만원 기탁



장흥군 관산은 청하영농법인 김현복 대표가 최근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이사장 이명호 군수)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 청하영농법인은 파프리카를 재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8년 9월 설립 고품질 파프리카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마사회 광주지사, 소외이웃에 '사랑의 선물'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지사장 이태섭)는 설을 앞두고 지역민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최근 동구 계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외계층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신나는 일터 다짐대회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역본부(여성구 본부장)는 지난 4일 본부 강당에서 '광주전남지역본부 봉사를 위한 노사다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제공)

광주네팔인공동체 '명절맞이 위로잔치'



광주네팔인공동체(대표 바클다이마리)는 설을 맞아 광산구 산정동 네팔인공동체에서 '명절맞이 위로잔치'를 갖는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공동체는 주말마다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네팔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박정렬기자 halo@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재우) 월례회=5일(화)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8080.

일림

▲장애인동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 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장애우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진환경영농사업단=고연령, 저학력, 무기능자 중에서 농사에 경험 있는 참여주민들을 위주로 유기농 산물과 연관이 다양한 채소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유기농전문 영농

인으로 거듭나며 웨빙제품을 선호하는 대상을 위주로 고정고객 및 자체 제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 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

226-9001~2.

▲무료 알코올상담=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광주요한알코올상담센터 062-526-3370, 510-3370.

▲호텔이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 =“입양은 가슴으로 넣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이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증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주·전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에게 증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활동. (사)장애인먼저 실천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한국노후생애대학인학교 6기 학생 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

226-9001~2. 강)치료, 노인상담심리학. 원서접수는 2월15일(금) 오후 5시까지 062-223-1357, 010-2646-5023.

▲대한노인회경로당 지역지원센터 직원=사회복지사 2급 이상 사회복지분야 및 행정경력자 062-652-7374.

▲성공투자주식 아카데미=“주식은 기술이고 기술은 돈이다” 주식 토론방 2차 회원 모집, 문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070-4355-2666(<http://cafe.daum.net/hero43210>)

▲재단법인 한국산업평가원 평생 교육원=특별과정 : 학·석·박사 학생 및 연구자를 위한 논문작성법·해양래저 창업 과정, 자격증 : 공인증개사·웃음 운동지도자과정·어린이북마트 지도사·피부미용사·미용성형 반사 요법·한방피부미용·타이 마사지, 교양 : 디지털사진·일본어 회화·천연비누 및 화장품 만들기·클래식 음악의 이해, 수강생 수시모집 062-430-7744.

▲모집
▲한국노후생애대학인학교 6기 학생 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

린 돈으로 구입한 에스프레소 기계가 전부였지만 그는 자신있었다. 하지만 인·허가 문제와 민원은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과태료 때문에 손에 쥐는 돈이 없을 정도였다.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장사를 접어야 했다.

그러나 “찾아온 손님들이 ‘맛있다’라고 말해주는 게 너무 행복했다”는 그는 커피를 포기할 수 없었다. 몇 달에 걸쳐 다시 로스팅을 공부한 후, 그는 조선대 정문에 3.5평짜리 조그만 카페를 열었다.

그의 커피 공간은 이제 10평으로 늘어났다.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6kg 짜리 중형 로스터기도 들었다. 세렌디피티점도 광주에만 15개, 전주 1개,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개씩 총 18개에 달한다. 손님들에게 최고의 커피맛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그에게 성공이란 달콤한 결실로 돌아온 것이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 커피를 전했을 뿐”이라는 그의 진정성 있는 커피 사랑은 앞으로 이어진다. 임씨는 “앞으로 세렌디피티 매장을 복수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 토종 커피 브랜드로 대기업 맞서는 임석 일 세렌디 대표

변화가는 물론 대학가까지 절경한 스타벅스, 탑 엔탈스 등 기업형 커피전문점의 흥수 속에서 지역 민의 입맛은 물론 문화까지 맞춘 '토종 브랜드'의 선전이 눈에 띈다. 500만 원짜리 커피트럭에서 시작해 이제 서울·전주 등 전국에 커피점인점을 운영하는 임석일(34)씨의 가게도 그 중 하나다.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정문에 위치한 카페 세렌디(serendip). 임씨에게는 커피가 가게 이름처럼 그의 세렌디피티(serendipity). 우연한 행복, 뜻밖의 발견였다.

전남대 임산공학과를 나온 임씨는 졸업 후 학동의 한 컴퓨터 대리점에서 일을 했다. 그때까진 커피관은 자판기 커피밖에 몰랐다. 한마디로 커피와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다. 그런 그가 이 세계로 뛰어들게 된 건, 우연히 편의점에서 본 한권의 책 때문이었다.

“국내 최초로 국회의사당 안에 카페를 연 ‘커피장인’ 이동진씨의 ‘비비남경 이야기’였어요. 핸드

드립(손으로 직접 내려 커피를 만드는 방식) 커피를 그때 처음 알았죠”

자신을 믿고 커피에 열정을 쏟아붓는 이씨의 모습은 임씨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책에 찢린 20g 생두를 직접 볶아보고 싶었다. 그때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점이라면 어딘든 찾아가 ‘묻고, 듣고, 맛보는’ 현장 실습을 떠났다. 2003년까지만 해도 광주에 핸드드립 커피가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미세한 차이로도 맛이 바뀌는 로스팅(생두를 볶아 원두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경험도, 지식도 부족했다. 데 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하루 30~40잔씩 커피를 마셨다. 위장은 물론 로스팅기가 내뿜는 연기에 기침을 닦고 살아야 했다. 그때는 “커피에 미쳐있던 때”였다.

그런 노력 끝에 2004년 처음으로 그는 자신만의 커피전문점을 열게 됐다. ‘세렌디’의 이름을 건 첫 가게는 다름 아닌 트럭. 직접 만든 ‘커피트럭’에 빌

아이돌 '스피드' 오늘 5·18 묘지 참배

뮤직비디오 촬영 인연... 오후엔 총장로 '팬사인회'

아이돌 그룹 스피드가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고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4일 밝혔다.

스피드는 이날 광주에서 팬사인회를 갖기 전인 오후 3시30분 자신의 1집 수록곡 '슬픈 악수'와 '잇츠 오버(It's over)'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5·18 묘지를 방문한다.

배우 이보영과 지창욱이 출연한 이 뮤직비디오에

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내용이 드라마 형식으로 담겼다.

스피드 멤버들은 “뮤직비디오를 통해 그 시대의 많은 분이 민주화를 위해 헌신 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가슴이 아팠다”며 “꼭 한번 5·18 묘지를 찾고 싶었는데 광주 팬사인회에 가면서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스피드는 이날 오후 6시 30분 광주 '25시 음악사'

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내용이 드라마 형식으로 담겼다.

스피드 멤버들은 “뮤직비디오를 통해 그 시대의 많은 분이 민주화를 위해 헌신 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가슴이 아팠다”며 “꼭 한번 5·18 묘지를 찾고 싶었는데 광주 팬사인회에 가면서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스피드는 이날 오후 6시 30분 광주 '25시 음악사'



에서 팬사인회를 연 후 오는 6일에는 부산 파워스 테이션에서 팬들과 만난다. 또 오는 18일 작곡가 융감형제가 만든 신곡이 담긴 1집의 리패키지 음반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인사

◆전남지방경찰청

◇경정 ▲홍보계장 김종득 ▲112종합 상황실장(직무대리) 이교석 ▲교통계장 최병운 ▲작전전경계장 안강섭 ▲지능 범죄수사대장 박태곤 ▲수사1계장(직무대리) 박종호 ▲정보3계장 배승관 ▲목포서 생활안전과장 공정원 ▲목포서 여성청소년과장 장종석 ▲목포서 수사과장 양병우 ▲목포서 형사과장(직무대리) 김선대 ▲목포서 경비교통과장 최성근 ▲목포서 청문감사관(직무대리) 정병연 ▲여수서 경비과장 김현식 ▲여수서 생활안전과장(직무대리) 전재윤 ▲여수서 여성청소년과장(직무대리) 허양선 ▲여수서 수사과장(직무대리) 서기원 ▲여수서 형사과장(직무대리) 정종우 ▲여수서 경비교통과장(직무대리) 이정호 ▲여수서 정보보안과장(직무대리) 김명진 ▲여수서 청문감사관(직무대리) 강진규 ▲순천서 생활안전과장(직무대리) 이경우 ▲순천서 여성청소년과장 심세식 ▲여수서 수사과장 김일남 ▲순천서 형사과장 나홍철 ▲순천서 경비교통과장 이성기 ▲순천서 정보보안과장 배윤규 ▲나주시 경무과장(직무대리) 이진현 ▲나주시 수사과장 김상문 ▲광양서 경비과장(직무대리) 김정원 ▲광양서 경비교통과장 정성록 ▲고흥서 수사과장(직무대리) 김기범 ▲해남서 생활안전과장 윤주홍 ▲해남서 수사과장 이형탁 ▲보성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김태연 ▲영광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장상갑 ▲화순서 생활안전교통과장(직무대리) 박준열 ▲영암서 생활안전교통과장(직무대리) 조정제

KB국민은행 '사랑의 쌀' 400포



KB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본부장 허정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4일 KB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정 400 가구에 지역 내 농가로부터 구입한 친환경 쌀 400포를 전달했다.

허정수 호남지역본부장은 “우리 이웃들이 훈훈한 설날을 맞이하려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KB국민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호의 고향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쥐지를 밝혔다.

유노윤호의 일본 팬들은 지난해에도 현금 2200만 원과 동방신기의 앨범 1118장을 전달하는 등 지난 2011년부터 총 77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연합뉴스

유노윤호의 일본 팬들은 지난해에도 현금 2200만 원과 동방신기의 앨범 1118장을 전달하는 등 지난 2011년부터 총 77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KB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본부장 허정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4일 KB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정 400 가구에 지역 내 농가로부터 구입한 친환경 쌀 400포를 전달했다.

허정수 호남지역본부장은 “우리 이웃들이 훈훈한 설날을 맞이하려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KB국민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호의 고향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쥐지를 밝혔다.

유노윤호의 일본 팬들은 지난해에도 현금 2200만 원과 동방신기의 앨범 1118장을 전달하는 등 지난 2011년부터 총 77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KB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본